

중국 화학경기 ②

폴리올레핀 생산확대로 수입은 감소**인프라 정비돼 외국기업 투자 활발 ... 서부 천연가스 생산이 초점**

중국의 PE 및 PP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해 왔으며 2002년 중국의 PE 및 PP 소비량은 각각 11%, 13% 증가했으나 2003년에는 생산량 및 수입량으로 볼 때 각각 3%,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수요기업들의 재고소진으로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PTA는 SARS를 변화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Phillip Townsend Associates에 따르면, 중국의 2003년 상반기 PE(Polyethylene) 생산량은 200만톤으로 12% 증가했으나 수입량은 230만톤으로 4-5% 감소했다. PP(Propylene) 생산량 또한 200만톤 이상으로 11% 증가했으나 수입량은 130만톤 이하로 저조했다.

따라서 2004년부터 중국의 수요 신장률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SARS의 영향으로 약 3개월 동안 중국의 경제는 휴면상태에 들어갔으나 피해는 크지 않았으며 누구도 중국 경제가 곧 회복될 것에 대해 의심치 않았다.

CPCIA(China Petroleum &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SARS에도 불구하고 2003년 상반기 중국의 화학산업 생산액은 4572억원(551억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다. 60개 거대 화학기업 중 2002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기업수는 16개에 달했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9개에 불과했다.

PetroChina는 구조조정을 통해 2002년 상반기 4억7000만원의 적자상태에서 2003년 상반기 12억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3년만에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SARS가 외국기업들의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지는 못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상반기 외국기업의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액은 303억달러로 34%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전체 투자규모는 2002년의 52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다국적기업들은 끊임없이 중국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발표된 프로젝트들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4개의 세계적인 규모의 에틸렌(Ethylene) 크래커를 포함해 무수한 화학 플랜트들이 2005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의 투자열기도 뜨거운데, Yizheng Chemical Fiber는 2003년 4월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45만톤 플랜트를 완공했으며 Zhenhai Refinig은 8월부터 P-X(Para-Xylene) 45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Yizheng Chemical Fiber 및 Zhenhai Refining은 모두 Sinopec의 자회사이다.

또 중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2개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Shanghai의 화학산업 붐을 한층 달아오르게 할 전망이다.

PetroChina는 2003년 말 파이프라인을 개통함으로써 중국 극서지역의 천연가스를 Shanghai로 수송해 주로 공업용으로 상요할 계획이다. ExxonMobil, Gazprom 및 Royal Dutch/Shell은 2002년 7월 PetroChina와 80억달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합의문(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으나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PetroChina는 천연가스 판매가격으로 입방미터당 1.29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휴기업들은 가격이 높아 화학기업과 같은 대량 수요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etroChina는 제휴기업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Shanghai 정부는 15억원을 투자해 Caojing의 Shanghai Chemical Industry Park 부근 2개 섬에 Deepwater Port를 건설할 계획이다. 곧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에 들어가며 2006년 완공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06>